

## “정화중흥회의도 조력자 아닌 피해자”

고우스님 등 3명 '10·27 심의위'서 증언

10·27 법난 직후 출범한 정화중흥회의 집행부 스님들이 법난에 대한 숨겨진 사실을 증언했다. 기존의 통념과 달리 “정화중흥회의도 군부의 조력자가 아닌 피해자”라는 주장으로, 진상규명이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됐다. 10·27법난 피해자 명예회복 심의위원회(위원장 영담스님)는 정화중흥회의 총무부장 고우스님(현 조계종 원로의원), 사서실장 활성스님(고요한소리 이사장), 함께 일했던 지환스님(조계종 기본선원장)을 대상으로 지난 18일 남원 실상사 인근 고요한소리 역경원에서 면담조사를 진행했다.



지난 18일 남원 고요한소리 역경원에서 진행된 면담조사. 오른쪽부터 시계 반대방향으로 고우스님, 지환스님, 활성스님, 영담스님.

불교정화중흥회의는 법난 일주일 뒤인 1980년 11월3일 총무원과 중앙종회 등 종단의 전권을 위임받아 만들어진 비상기구다. 그간 종단 내부로부터 군부정권의 어용단체라는 비난을 받아왔다. 그러나 증언에 나선

“중단상처 최소화 위한 불가피한 선택...”

“보다 구체적이고 객관적 진상파악 필요”

스님들은 “중단이 입은 끔찍한 상처를 봉합하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었다”며 “서울 피터 게임 상태에서 종단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했다”고 반박했다.

법난이 터질 당시 고우스님과 지환스님, 활성스님은 문경 봉암사에

정진 중이었다. 법난 소식을 들은 봉암사 대종은 사태의 심각성을 파악할 목적으로 세 스님을 전령 삼아 서울로 올려 보내기로 결의했다. 서울대 정치학과 출신인 활성스님의 경우 나이는 많았지만 출가한 지 5년 밖에 안 돼 ‘그나마 세상물정에 밝으리라’는 이유로 지목됐다. 봉암사 조실 서암스님(전 조계종 중정)을 모시고 세 스님이 상경한 날은 10월31일. 마침 지환스님의 고교 선배로 봉암사 대학생 수도원에서 같이 활동했던 전모 중령이 도움을 요청했다. 사태 수습을 위해 정화중흥회의에 참여할 스님들을 추천해달라는 것이었다. 법난은 우발적인 난동도 아니라 ‘45작계(건지동 45번지 조계사를 의미)’에 따라 수개월 전부터 치밀하게 준비된 만행이었다. 하지만 사태의 여파가 걷잡을 수 없이 커지자 군부 역시 ‘출구전략’을 고심하던 상황이였다.

종단 원로와 중진들은 또 다른 희

생양이 될까봐 아무도 소임을 맡으려 하지 않는 분위기였다. 역사의 손가락질을 받을 게 뻔한 ‘죽을 자리’였다. 그러나 “이미 일은 저질러졌고 누군가는 이를 치워야 한다”는 것이 젊은 수행자들의 공통된 판단이었다. 특히 법난의 부당성에 대해 당당하게 비판하던 활성스님이 본의아니하게 군부의 호감을 샀다. 봉암사 선방에서 신방이 두텁던 탄성스님을 정화중흥회의 상임위원장 겸 총무원장으로 추대하는 산파가 됐다. 탄성스님은 고우스님과 활성스님이 “진퇴를 같이 한다”는 조건으로 제의를 승낙했다. 활성스님은 “언젠가 봉암사에서 탄성스님이 종단에 대한 우려를 쏟아내자, 내가 반드시 나중에 스님을 총무원장으로 옹립하겠다는 농담이 현실이 됐다”며 씩씩한 심경을 토로했다.

2면에 계속  
 남원=장영섭 기자 fuel@bulgyo.com



33대 집행부 ‘보리수 열매’ 채취 지난 2009년 11월 제33대 조계종 집행부 출범에 맞춰 종단 발전과 불교 중흥을 다짐하며 기념식수한 보리수나무에서 처음으로 보리수 열매를 채취했다. 총무원장 자승스님은 지난 16일 총무원 재무부장 도문스님 등과 함께 조계사 대웅전 앞마당에 위치한 보리수나무에서 열매를 채취했다. 총무원장 스님은 이 자리에서 “벌써 2년여 시간이 지나 열매를 채취하게 돼 기쁘다”면서 “보리수열매로 염주를 제작해 중정예하와 원로의장 스님, 중앙신도회장 등에게 나눠드리도록 하라”고 조계사 주지 토진스님에게 당부했다.  
 신재호 기자 air501@bulgyo.com

## 출·재가자 무주상보시 잇따라

한 스님, 교육불사·포교에 4000만원

한 불자, 승려노후복지위해 2500만원

**알림**

**QR코드로 만나는 불교신문 뉴스**

스마트폰용 모바일 웹 서비스를 시작한 불교신문은 주요 뉴스를 QR코드로 제공합니다. 불교신문 인기 뉴스를 스마트폰으로 간편하게 만나보세요.

**“오래된 연꽃 속에서 부처님 친견한다”**  
 소설가 정찬주의 ‘오래된 가는 길’

**“즐거움 신해학독 몸 마음도 젊어진다”**  
 ‘경제인물지회 홍보대사’ 가수 김태곤

**“소득지족이 진정한 생애복음”**  
 이것이 결사다-‘생명 모범도량’ 구래 회임사

중단불사를 위해 출·재가자들의 무주상 보시행이 이어지고 있다. 최근 이름을 밝히지 않은 종단의 어른 스님이 중단발전을 위해 4000만원을 쾌척했다. 최근 익명의 스님으로부터 발전기금을 보시 받은 조계종 포교원장 해충스님은 지난 16일 한국 불교역사문화기념관 2층 집무실에서 교육원, 포교원, 군종교구와 동국대에 1000만원 씩 총 4000만원을 전달했다. 이날 포교원장 스님이 대신 전달한 후원금은 조계종 승가교육진흥기금과 포교활성화기금, 논산 호국연무사 건립기금, 동국대 제2건축기금으로 쓰인다.

포교원장 스님은 “종단 어른 스님이 3년 간 정성으로 모은 돈을 종단의 교육 불사와 포교활성화, 군포교를 위한 법당건립과 동국대 발전기금으로 희사했다”며 “무주상보시를

실천한 스님의 거룩한 뜻을 잘 받들어 이 땅이 불국토가 될 수 있도록 애써 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4개 기관 관계자들은 고맙다는 인사와 함께 “교육, 포교 불사가 잘 회향할 수 있도록 노력해 스님의 큰 뜻에 보답하겠다”고 답했다.

이와 함께 익명의 불자가 승려노후복지기금을 기탁했다. 이름을 밝히지 않은 한 불자가 오는 10월 중단차원의 승려노후복지제도의 본격적인 시행을 앞두고 2500만원을 승려노후복지기금으로 쾌척했다. 조계종 총무원 총무부(부장 영담스님)는 “익명을 요구한 불자가 지난 16일 종단의 승려노후복지제도가 하루빨리 달한 후원은 조계종 승가교육진흥기금과 포교활성화기금, 논산 호국연무사 건립기금, 동국대 제2건축기금으로 쓰인다.

총무부는 “승려노후복지제도의 본격적인 시행을 앞두고 CMS 후원 등 소액 보시는 줄을 잇고 있지만 재가 불자가 거금을 보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밝혔다.

박인택 여현경 기자

주요 명사와 강의	
원로의원 고우스님	‘한국사회에서 불교 역할’
최완수 연구실장	‘한국불상의 원류’
김종인 전 경제수석	‘한국경제의 전망과 과제’
윤여준 전 환경장관	‘2012년 선택과 한국정치’
임동원 전 국정원장	‘통일한국의 과제와 전망’
조국 서울대 교수	‘우리시대 인권을 말하다’

## 제2기 화쟁리더십 아카데미 9월5일 개강

화쟁리더십 아카데미 제2기 수업이 오는 9월5일 개강한다. 강좌기간은 9월5일부터 11월28일까지 총 11주이며, 매주 월요일 오후 7시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국제회의장에서 열린다. 조계종 원로의원 고우스님의 ‘한국사회에서 불교의 역할’을 주제로 한 입학특강을 시작으로 매주 각계 명사들의 소통과 화합의 대안을 주제로 한 강의가 이어진다.

최완수 간송미술관 학예연구실장의 ‘한국불상의 원류’, 김종인 전 청와대 경제수석의 ‘한국경제의 전망과 과제’, 윤여준 전 환경부장관의 ‘2012년 선택과 한국정치’, 임동원 전 국가정보원 원장의 ‘통일한국의 과제와 전망’, 조국 서울대 교수의

‘우리시대의 인권을 말하다’ 등의 강좌가 예정돼 있다. 11월28일 수료특강엔 조계종 화쟁위원장 도범스님이 ‘생명평화의 길’을 주제로 법문하며 격려한다. 한편 교육 참가자들은 전통사찰 템플스테이도 체험할 수 있으며, 종단 스님의 경우 조계종 교육원의 연수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인증받을 수 있다.

화쟁리더십 아카데미는 원효스님의 화쟁(和靜)사상으로 세상의 갈등과 대립을 풀고 소통과 화합을 구현하자는 목적으로 마련된 교육과정이다. 지난 6월 1기가 수료했으며 총무원장 자승스님을 비롯한 68명의 수료생을 배출했다.  
 장영섭 기자 fuel@bulgyo.com

## “불자 네트워크 구축”

### 화쟁포럼 임원진 예방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스님은 지난 18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4층 집견실에서 화쟁리더십아카데미 1기 졸업생들로 구성된 화쟁리더십포럼 임원진의 예방을 받고 환담했다. 이날 예방에는 이상훈 화쟁리더십포럼 회장(한국전기안전공사 상임이사) 등 10명의 임원진과 함께 화쟁리더십아카데미를 공동주최한 조계종 화쟁위원회와 불교사회연구소의 대표소임을 받고 있

는 도범스님과 법안스님이 자리를 함께 했다.

이상훈 회장은 “화쟁리더십아카데미 졸업자로서 화쟁사상을 통한 사회갈등 해소에 앞장설 뿐만 아니라 불자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불교의 위상 강화에도 앞장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화쟁리더십아카데미 1기 졸업생이기도 한 총무원장 자승스님은 “9월 5일부터 진행되는 2기 화쟁리더십아카데미에도 시간이 된다면 강의를 듣도록 하고, 교역자·일반적 종무원들도 강의를 들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격려했다.  
 박인택 기자 parkintak@bulgyo.com

## 모두가 승자가 되는 특별한 올림픽, 스페셜올림픽

누군가는 기록을 위해 뛰고 누군가는 명예를 위해 뛰지만  
 하지만 누군가는 함께하기 위해 뛰니다  
 지적발달장애인을 향한 세상의 편견을 넘어서서  
 끝없이 도전하는 용기와 뛰어난 인내심으로  
 올림픽의 진정한 정신을 보여준 선수들...  
 당신들 모두가 이 올림픽의 자랑스러운 승자입니다  
 스페셜올림픽, 국민체육진흥공단과 스포츠도토가 함께 합니다



스페셜올림픽이란?  
 IOC가 인정한 세계3대올림픽의 하나로 지적발달장애인에게 지속적인 스포츠훈련 기회를 제공하고 수시로 경기대회를 개최하여 참여시킴으로써, 신체적능력을 향상시키고 생산적인 사회구성원으로서 인정받을 수 있도록 기여하는 공식 올림픽 행사입니다.